

# 평양 남경 유적

## 오곡 농사를 짓던 고조선 사람들의 보금자리



### 1 유적의 위치와 주변 환경

평양시 삼석 구역 호남리 남경 마을에 있는 유적으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 하였다. 유적은 남경마을 앞의 들판 옆을 흐르는 대동강의 오른쪽 기슭에 있으며, 강 상류 쪽에 위치한 표대 유적과는 3km쯤 떨어져 있다. 유적에서 강을 따라 내려가면 셋강인 남강과 만나는 곳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고 남강 건너편에 신석기시대의 금탄리 유적이 위치한다.

남경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여러 시기의 집터와 무덤들이 층위를 이루고 있는 대동강 유역의 대표적인 선사 유적이다. 유적은 강을 따라 남북 50m, 동서 100m의 범위에 걸쳐 있으며 신석기 시대 집터 5기(基), 청동기시대의 집터 22기와 돌널무덤 5기, 초기 철기시대의 독무덤 9기 등이 찾아졌다.

### 2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보금자리

신석기시대 집터는 12·17·31·32·37호 등 모두 5기가 찾아졌다. 집터의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12·17·32호)과 모 줄인 네모꼴 또는 긴 타원형(31·37호)으로 구분된다.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

에 집터의 바닥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진흙을 깔고 다졌다. 화덕자리는 대부분 중앙에 있으며 바닥을 판 다음 가장자리에 돌을 둘러 놓는 돌 두름식[圍石式]이었다. 12호 집터의 경우 화덕 바닥에 구멍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리 도구로 이용한 토기를 편리하게 세우기 위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출입 시설은 12호와 31호에서 조사되었다. 12호에서는 남쪽 벽 가운데에 복도처럼 길게 이어진 시설이 조사되었고, 31호 집터는 서남쪽과 동북쪽 모서리에서 벽체의 끊어진 부분이 찾아졌는데 이곳으로 드나들었던 것 같다.

남경 유적에서 발굴된 31호 집터는 그 구조가 특이하고 유물이 많이 찾아져 주목된다. 집터의 바닥은 위쪽과 아래쪽 2단(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윗단 바닥의 북쪽에서는 나무를 세워 놓은 구조물이 찾아졌는데 이곳에 돌그물추 2,000여 개와 단지 2점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그물추를 보관하던 곳이거나 그물을 사용한 다음 놓아두던 장소였던 것 같다.

이렇게 단이 진 신석기시대 집터는 평양 금탄리, 서울 암사동, 안산 대부북동, 인천 운서동과 삼목동 유적처럼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집의 구조는 당시 사람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들의 혜안을 엿볼 수 있다.

집터에서 찾아진 유물은 석기와 토기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며 주로 31호에서 조사되었다. 석기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찾아졌다. 도끼, 자귀, 대패, 갈돌과 갈판, 화살촉, 그물추, 칼, 솥돌, 무늬 새기개 등이다. 갈돌과 갈판은 12쌍이 발굴되었으며 화강암을 돌감으로 이용하였는데 많이 사용하여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마치 말 안장처럼 생겼다.

그물추는 3,000여 점이 찾아졌는데 거의 대부분 31호 집터의 것이다. 납작한 강자갈돌의 양 끝에 홈을 만들어 줄을 매달게 하였다. 대부분의 집에서 화재에도 불구하고 그물추를 끈으로 묶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면 크기에 따라 노끈의 굵기가 달랐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남경 유적에 살았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물고기 잡이에 다양한 종류의 그물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토기는 겉면에 있는 무늬에 따라 새김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로 구분된다. 독과 같은 저장용 토기부터 잔, 바리, 보시기처럼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까지 여러 종류다. 31호 집터에서는 120여 개체가 찾아졌는데 바탕흙, 크기, 새긴 무늬 등이 다양하다. 새김무늬 토기는 물고기 등뼈무늬, 점줄과 빗금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바탕흙은 모래나 활석을 사용하였다. 31호에서 아가리 지름이 63cm, 높이 84cm쯤 되는 큰 독이 찾아졌다. 덧무늬 토기로는 번개무늬가 있는 단지가 37호에서 1점 조사되었다. 겉면에는 간 흔적이 있고 목 부분은 안쪽으로 약간 오므라들었다.

31호 집터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먹거리도 나왔다. 이 집의 아랫단 서북쪽 벽 옆에서 불탄 좁쌀이 1되쯤 조사된 것을 비롯하여 도토리, 불탄 뽕조각 등이 발굴되었다.

남경 유적의 신석기시대 연대를 추정하는 것으로는 토기를 통한 상대연대 연구가 있다. 바탕흙으로 활석을 사용한 것을 좀 이른 시기로 보며 12·17·37호 집터가 해당하고 서기전 5,000년쯤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리고 모래가 많이 포함된 토기가 출토된 집터는 31·32호가 있고 서기전 4500년쯤이었을 것이다.

### 3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공존한 곳

남경 유적에 살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남겨 놓은 집터는 22기이고 그들이 묻혔던 돌널무덤은 5기이다. 이들 집터는 서로 겹쳐 있는데 긴 방향이나 구조, 출토 유물 등에 따라 구분하면 3시기로 나누어진다.

#### 1) 남경 I 기

I 기에 해당하는 집터는 6·7·9·30·33·34·36호 등 7기이다. 이들 집터는 평면이 긴 네모꼴이고 다른 집터보다 작은 편이다. 긴 방향은 동서쪽이고 집 안에서 기둥 구멍이 찾아지지 않았다.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짐을 한 것이 많고 불난 집이다.

I 기 집터에서는 많은 양의 팽이형 토기와 살림살이에 쓴 여러 종류의 석기가 발굴되었다. 팽이형 토기는 활석과 모래가 섞인 찰흙을 바탕흙으로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높이 20~26cm쯤 되는 작은 것들이다. 토기 아가리 쪽의 겹입술에는 3~5줄의 빗금무늬가 새겨져 있다. 36호 화덕자리 안에 팽이형 토기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을 끓이는데 사용한 것 같다.

석기는 화살촉, 돌창, 돌도끼, 돌자귀, 반달돌칼, 갈돌과 갈판 그리고 돌돈[石貨]이 찾아졌다. 석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 돌돈은 지름 50cm 되는 큰 것이 찾아져 석기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6호 집터의 가운데 쪽 1m 범위에서는 불에 탄 벼, 조, 기장, 수수, 콩 등 당시 사람들의 먹거리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 2) 남경 II 기

여기에는 3~5, 10~12, 18~20호 집터가 해당한다. 집터의 긴 방향이 모두 남북쪽이며 기둥과 벽체 구조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I 기 집터처럼 집 안에 기둥 없이 벽 가장자리에 작은 나무를 촘촘하게 세운 것이고 다른 것은 집의 가운데에 3개의 기둥을 세우고 벽 가장자리 쪽으로 작은 기둥을 일정 간격으로 만든 것이다.

II 기 집터에서는 팽이형 토기와 미송리형 토기, 여러 가지 석기, 치레겔이 등이 조사되었다. 팽이형 토기는 바탕흙, 크기, 색깔이 I 기 것과 비슷하며 겹입술에 새겨진 빗금무늬는 2~4줄로 다양하다.

고조선 사람들이 살림에 이용하였던 미송리형 토기가 대부분의 집터에서 찾아졌는데 묶음 줄무늬는 목과 몸통 부분에 3~4줄에서 13줄까지 새겼다. 손잡이는 꼭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장식의 의미로 입술 모양이 달려 있다. 그리고 몇몇 토기 가운데에는 미송리형 토기의 특징인 줄무늬나 손잡이는 없지만 바탕흙이나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발굴되었다.

석기는 주로 나무를 가공하는데 쓴 연모가 찾아졌고 4호와 10호 집터에서는 곱돌로 만든 단추 모양 치레겔이, 대롱 구슬과 굵은 구슬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11호 집터에서는 바가지 모양의 나무 그릇에서 불탄 기장이 찾아졌다.

#### 3) 남경 III 기

1·2·8·13~15호 집터가 남경 III 기에 해당한다. 집터의 규모가 앞 시기보다 대체로 커지며 긴 방향은 남

북쪽이다. 기둥 구멍이나 벽체의 구조는 II 기와 비슷하며, 집터의 바닥은 10cm 안팎으로 단이 지게 하였다.

8호 집터는 880×460×30~50cm 크기인데 움의 깊이가 조금씩 다르며 움 벽은 진흙을 바르고 불에 구웠던 것 같다.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졌는데 다른 곳보다 북쪽이 15cm쯤 낮아 단이 진 모습이다. 화덕은 북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있는데 바닥을 조금 파 움푹하게 만들었다. 벽 쪽에는 지름 10cm쯤 되는 작은 나무를 촘촘하게 세운 기둥 구멍 자리가 조사되었고 집 가운데 한 줄로 강돌을 둥글게 깔고 쌓은 구조물이 있는데 주춧돌의 기능을 했던 것 같다.

III 기 집터에서는 팽이형 토기와 반달돌칼, 돌창, 별도끼, 그물추, 대패날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1호 집터는 10개체 이상의 돌돈이 조사되어 석기 제작소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남경 유적의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남긴 무덤이 조사되었다. 모두 넓적한 판자돌을 상자처럼 짜 맞춘 돌널무덤[石棺墓]으로 5기가 발굴되었다. 사용된 판자돌은 두께 2~3cm 되는 점판암이며,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110~150cm, 너비 50cm쯤 된다. 사람 뼈가 조사된 4호 무덤을 보면 다리뼈를 구부려 묻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 무덤은 굽혀묻기[屈肢葬]를 하였던 것 같다. 꺼묻거리는 1호에서 돌창, 돌화살촉, 돌돈, 미송리형 토기 조각이 찾아졌다.

한편 청동기시대 집터 위의 퇴적층에서 9기의 독무덤[甕棺墓]이 발굴되었다. 대부분 아가리가 20~30cm 되는 화분형 단지 3개를 겹쳐 맞추어 놓은 이음 독무덤이지만 6호와 9호 무덤은 짧은 목의 노끈무늬 회색 단지와 화분형 단지를 이어서 만들었다.

#### 4 남경 유적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

남경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집터와 무덤은 대동강 주변의 신석기~초기 철기시대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대동강 근처에 터전을 잡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 잡이를 한 마을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곳에 7,000년 전부터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은 선사시대 한반도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청동기시대 남경 유적 사람들은 벼농사를 비롯하여 수수, 조, 콩, 기장 등 오곡을 재배하였다. 발굴된 집터를 보면 주춧돌이 놓인 기둥, 벽체의 구조, 화덕자리, 바닥의 처리 등 상당히 발전한 수준의 집을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나무 가공에 쓴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은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목재 가공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다.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에서 발굴된 36호 집터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2974±70bp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는 뜻이다. bp (before the present)는 국제 규약에 따라 1950년을 기준으로 한대로 밝혀져 서기전 12세기쯤에 해당한다. 남경 II 기 집터에서 발굴된 미송리형 토기와 연관

시켜 볼 때 고조선 사람들이 활동하였던 시기이므로 이들 집터나 무덤은 고조선 사람들이 생활을 꾸렸던 보금자리이면서 그들이 잠든 영원한 안식처였을 것이다.